

홍천 명동리 농약없는 마을

연 의 흡

강원도 홍천군 남면 명동리

- I. 마을 현황
- II. 마을의 주요시설
- III. 마을 소개

I. 마을 현황

상 주 가 구 수(호)			상 주 인 구 수(명)			경 작 지 면 적(ha)		
농 가	비농가	계	남	녀	계	논	밭	계
59	35	94	127	131	258	55	48	103

II. 마을의 주요시설

기 반 시 설		공 동 시 설		공 동 농 기 계	
시설하우스	4,200평	공동창고(2동)	80평	트랙터 47마력	2대
과 수 원	5,000평	정미소, 떡방아간	40평	액비살포기	2대
한 우	145두	농기계보관창고	50평	퇴비살포기	1대
양 돈	530두	마을회관(2층)	55평	비료석회살포기	5대
젖 소	53두	노인정	27평	과일선별기	2대
흑 염 소	500두	야채냉장저온기	20평	상토제조기	2대
가 금 류	15,000수	퇴비장	100평	톱밥제조기	1대
기 타	270마리	액비발효조(4기)	800톤	파쇄기	1대
		공동담	2,000평	심토파쇄기	1대
		입 야	3ha	잡곡 선별기	2조
				냉동차량(25톤)	1대
				최아기	1대

Ⅲ. 마을 소개

명동리는 상주가구 94호, 논 55ha, 밭 48ha를 가지고 있으며, 서울에서 약 90km, 홍천에서 서울 방향으로 14km 떨어진 44번 국도변에 위치하고 있다.

면 소재지 양덕원과 홍천강 지류인 양덕천을 끼고 5개 자연부락이 옹기종기 모여 있어 어느 곳에서나 한 눈에 마을이 다 보이는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농촌 마을이다.

이 곳에 2001년 4월 25일 소비자, 공직자, 언론기관의 주시아래 전국 최초로 “농약없는 마을”을 (사)한살림과 선포식을 하게 된 크고 작은 사연이 가득한, 또한 농민들의 처절한 애환이 서린 곳이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마을 주민과 앞장서 묵묵히 선도해 온 분들의 노력이 생태계 보전과 고품질 안전 농산물의 생산에 기틀이 되었다.

1992년 이후 세계 무역질서의 대 변환과 함께 황폐해 가는 지구환경, 농업분야에서도 거센 폭풍같이 불어 닥쳐오고, 이제 농업이 살아갈 길은 생명운동을 통한 소비자와의 상생과 지역을 아우러 가는 지역농업의 발전이 한 방법으로 인식한 8농가의 단합으로 1993년부터 작목반을 결성하여, 유기농으로의 조용한 타산과 오직 가족건강과 안전농산물 생산이라는 명제아래 타산이 맞지 않아도 실망 없이 환경농업의 확산에 주력하였다.

1997년 작목반을 환경농업 작목반으로 재편, 유기농 보급을 위한 오리농법 도입으로 벼농사를 무농약화 하기로 하고, 일부 농가의 참여아래 판로의 보장 없이 계속하였다. 유기농을 위한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 기술습득과 선도지역 견학으로 나름대로 판단, 환경농업의 기틀을 마련해 가던 중, 1999년 지역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인 환경농업 특성화 시범마을로 지정받아 8,400만원 보조, 3,600만원 자부담으로 마을의 34농가, 시설 5,000평, 논농사 15ha, 밭 5ha를 필두로 유기농 실천을

본격적으로 하였다.

도·농 교류를 통한 소비자 확보를 위하여 4회에 걸쳐 500여명의 도시 소비자 초청 행사를 하며 “우리 동네”라는 상표를 출원등록(16개 농산물)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홍보 및 판매를 이원화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같은 해 6월 19일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의 제79차 이동장관실 순영행사와 이 때 환경농업단체를 대표하여 이 곳을 찾은 (사)한살림 박재일 회장과의 인연이 오늘의 명동리가 있게 된 큰 계기가 되었다.

당시 소비자 개개인에게 쌀과 잡곡을 배달하며, 수매자금문제, 생산자 우선순위 선정 등 큰 난관이 있었으나, (사)한살림의 생산지로 확정되면서 전량수매에 직관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사)한살림 도정공장에 대한통운 트럭으로 4대에 나누어 싣고 공급하던 날의 기쁨이 아직도 생생하다.

이제 (사)한살림 생산지로서 지정되면서 지정 생산자 회원이 되어 판로에 걱정 없이 생산에 전념하여 진정한 환경농업의 발전을 이룰 계기가 되어 중점적인 추진 사항이 토양가꾸기 운동, 퇴비증산운동, 소비자와의 신뢰구축 및 교류의 활성화, 쾌적한 환경개선사업 전개 등 목적 있는 농업으로의 전환이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 하나, 둘 문제를 풀기 시작하였다.

우선, 마을의 선도농가 17가구주가 운영위원이 되어 월 2회 회합을 갖고, 주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공동 농작업 유도, 환경보전운동, 생명운동의 조용한 접근으로 농업의 중요성과 지속농업과 혼자가 아닌 공생농업으로의 지역 농업화의 필요성을 주지시키기 위한 교육, 견학참여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토양개선제로 벤토나이트, 제오라이트, 맥반석, 규산질 소식화의 사용과 환경과 퇴비 생산을 연계, 하천변 정비, 여름철 퇴비생산, 녹비작물재배 적극유도, 화학비료 사용억제, 전 농지의 무농약화 등, 지력증진에 우선하여, 화학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도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축산농가를 연계, 축분

퇴비 생산과 돈분액비시설(800톤)을 이용하여 농지를 기름지게 하였다.

이를 위하여 모든 작업을 공동으로 추진, 연로하신 어른들도 농업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경로효친을 위한 설날 합동 세배식(음력 1월 1일), 후진양성과 향토심 고취를 위한 상급학교 진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 예절 한문교육을 실시하고, 토양개량제 살포, 녹비작물재배, 병충해 방제 등 웬만한 농작업의 공동작업으로 전환하여 농민상생운동을 먼저 전개하고 있다.

환경농업의 실천이 관행농업보다 많은 노력과 비용이 지출되는 농법이므로, 일정 기간 투입비용의 보조를 위하여 강원도만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하는 “새농촌 건설운동”에 참여하여 사업비를 지원 받아 계속 발전시키고자 노력한 결과, 1999년 군 우수마을로 지정되어 6,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았다. 이를 재투자하여 2000년 무농약 생산지를 2배로 늘리고, 2000년도에는 강원도의 “새농촌 건설운동 우수마을”로 지정되어 5억원의 지원금을 받아 전 농지를 농약없는 농업으로 확대하고 2001년 4월 25일 농약없는 마을로 선포하게 되었다.

소비자 교류 행사를 하며, 한 쪽에서는 농약을 치면서 내 농토는 무농약을 주장하고, 판매는 인증이나 표시한 농지만 무농약 유기농으로 하고, 다른 자신의 농토는 농약을 살포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소비자를 기만하는 농심이 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 소비자가 항상 와도 농약냄새가 없고, 실개천에 미꾸라지, 가재가 있는 살아 숨쉬는 환경이 가꾸어지고, 농관원이나, 민간 인증기관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아니라, 내 농산물은 내가 인증하는 농심이 살아 숨쉬는, 내가 생산한 농산물은 전국 제일의 안정도를 자랑하고,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생명운동으로 이어지는 농심이 살아 숨쉬는 곳, 이 곳이 “명동리”이다.

이제 금년에는 소비자, 생산자가 함께 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이곳 명동리에 국·지방비 4억2천만원, 자부담 4,450만원을 투입하여, 교육과 체험과 농촌의 녹색관광이 함께 할 장을 마련한다.

고풍스런 옛 건물(목조 기와) 복원, 흙벽돌 기와집을 신축하고 다양한 아이터를 개발하여 체험과 교육, 관광을 함께 할 진정한 도·농 교류의 산 교육장을 마련하고, 다양한 가공체험, 농산물의 부가가치 높이를 꾀한 소득증대 노력이 함께 이루어 질 것이다.

생산과 가공, 판매를 함께 하는 농촌체험을 뛰어 생태 테마마을로 육성하여, 무차별적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농산물에 대하여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과 우수성, 우리 생태환경을 살리고 보전하는데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우리 소비자가 함께 하며, 우리것을 아끼고 우리 음식을 햄버거나 빵보다 우수함을 인식하게 하는 장이 농가경제의 파탄을 막고, 농업의 지속으로 이어져 아름다운 이 강산이 만들어지고 우리 후손이 좋은 환경에서 마음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명동리가 등불이 되었으면 한다. 감사합니다.